

『현씨양웅쌍린기』에 나타난 개성적인 여인상

- 주소저의 인물분석을 바탕으로 -

유인선*

I. 서론

조선후기에는 고전소설이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으며, 18세기 후에는 세 책가와 방각본 소설이 성행함에 따라 독자층이 널리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소설 속 생동감 넘치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곳곳에서 읽히게 되었다.

『현씨양웅쌍린기』 또한 이러한 흐름 속에서 널리 읽혔던 장편소설로, 이 본이 많고 속편이 제작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특히 이 작품은 현경문과 주소저, 현수문과 윤혜빙의 부부갈등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인물의 심리 묘사가 매우 섬세한 편이어서 흡입력이 강한 작품이다. 또한 이 작품은 부부 갈등과 함께 유쾌한 에피소드들이 결합되어 있어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며 재미를 더하고 있다.

『현씨양웅쌍린기』는 현경문과 주소저, 현수문과 윤혜빙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지만, 이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인물은 ‘주소저’이다. 그녀는 남편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예로써 비판하며 평등한 부부관계를 지향한다. 남편에게 대항한다는 점에서 윤혜빙 또한 주소저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지만, 윤혜빙의 경우 자신이 당한 수모를 셧고 현수문을 골려주는 것에 그친다는 점에서 주소저가 보인 평등의식과는 다르다. 또한 주소저는 출가외인에 대한 통념과는 달리 부모님의 곁에서 평생을 바치려하며 현경문 못지않게 자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부 4학년

신의 가문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여준다. 작품 후반부에서는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영웅적인 면모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주소저는 매우 주목할 만한 인물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씨양웅쌍린기』에 대한 서지사항과 작품의 내용, 선행 연구를 통해 작품의 성격을 알아보는 한편, 효녀·현부·영웅이라는 측면에서 주소저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다각도에서 주소저를 분석함으로써 당시의 작품 속에 나타난 주체적이고 개성적인 여성상을 살펴는 한편, 이러한 등장인물이 독자들과 어떤 관계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II. 작품소개

1. 서지사항

『현씨양웅쌍린기』는 『명주기봉』, 『명주옥연기합록』, 『현씨팔룡기』로 이어지는 4부작 중 첫 번째 작품이다. 『현씨팔룡기』는 아직 발굴되지 않았으며, 『명주옥연기합록』에 남겨진 기록을 통해 그 제명(題名)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현씨양웅쌍린기』는 이본(異本)에 따라 『현씨쌍인기』, 『현씨양웅기』, 『현씨상연기』 등으로 불리며, 한자는 ‘玄氏兩熊雙麟記’, ‘玄氏兩雄雙麟記’로 달리 표기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장편소설은 이본이 적은 편이지만, 『현씨양웅쌍린기』는 그 분량 (21만 4천 여 자, 낙선재본 기준)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이본들이 존재한다. 조희웅의 『고전소설 이본목록』(집문당, 1999)에 따르면, 이 작품의 이본은 낙권으로 전하는 것까지 약 50여 종이 존재한다고 한다.¹⁾ 또한 『현씨양웅쌍린기』는 20세기 초반에 덕홍서림에서 활판으로 출판되기도 했는데, 이는 이 작품이 독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리며 향유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1) 이윤석·이다원 교주, 『현씨양웅쌍린기』 I, 경인문화사, 2006, p. 10.

『현씨양웅쌍린기』의 작자나 창작시기와 관련하여 뚜렷한 증거는 찾을 수 없지만, 서울대 도서관 소장본 「옥원재합기연」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현씨냥웅쌍님괴」의 필사기에서 그 단초를 찾을 수 있다. **서울대 도서관 소장본 「옥원재합기연」은 1790년대에 필사된 것으로, 권 14 표지 안쪽에 있는 소설목록에서 ‘현씨냥웅’·‘명주기봉’이라는 제목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현씨냥웅쌍님괴」의 필사기에도 ‘동치 습이년(1873) 계유’라는 말이 있는데,²⁾ 이 기록들을 통해 작품의 창작시기와 향유시기를 추측해 볼 수 있다.**

2. 작품내용

『현씨양웅쌍린기』의 내용은 현수문·현경문 형체가 각각 배필과의 결연과정에서 겪는 우여곡절을 기본으로 한다. 대송(大宋) 인조 연간에 일부상서 혼택지는 용모와 재주가 뛰어난 두 아들 수문과 경문을 두었는데, 혼기를 맞아 수문은 참지정사 하세걸의 딸과, 경문은 어사 주명기의 딸과 혼인하게 된다.

혼인 후 수문 부부는 화락하지만, 경문 부부는 첫 날부터 불화를 일으킨다. 경문은 아내인 주소저가 너무 아름다워 속세인(俗世人) 같지 않음을 꺼려 멀리하고, 주소저는 경문이 부당하게 자신을 멀시하고 천대함을 못마땅하게 여겨 그와 맞서 냉대한다. 이를 알게 된 주소저의 양친은 경문을 원망하여 혼부에 알리게 되고, 경문은 부친에게 심한 꾸중을 듣고 주소저·주어사 부부와 더욱 갈등을 빚는다.

이 와중에 주어사의 질녀(姪女) 취옥이 경문에게 반하여 유모와 짜고 경문의 후실이 됨으로써 이들의 갈등은 더욱 심각해진다. 주소저는 경문이 자신의 부모를 업신여기고 무례하게 대하자 노여움을 품게 되고, 주어사가 간신들의 모함으로 고향에 쫓겨 갈 때 주소저도 양친을 따라 떠나면서 경문과 이별하게 된다.

2) 위의 책, pp. 7~8.

이 후 주소저는 고향에서 부모를 모시던 중, 경문에게 반한 형아 군주에 의해 죽을 고비를 맞아 행방불명된다. 일광대사는 주소저를 구조하여 그녀에게 도술을 전수하고, 주소저는 ‘운유자(雲遊子)’로 행세하며 경문이 출전한 전쟁에 나가 공을 세운다. 후일 그녀는 몰래 부모님의 집에 돌아와 의탁하며 경문과 인연을 끊고, 부모님 곁에서 일생을 마치고자 한다.

한편 수문은 하소저와 금슬이 좋지만 색(色)을 좋아하는 풍류남아의 기질을 보인다. 그는 외숙인 장시랑 집에 기거하던 윤혜빙에게 반하여 그녀를 강제로 겁탈하게 된다. 이에 윤소저는 자살로써 항거하려 하나 실패하고,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잊었던 부모를 만나게 된다. 그녀가 사족(士族) 신분인 것으로 밝혀지자 수문은 혼인으로써 사태를 수습하려 하고, 윤소저는 수문을 거부하고 달아난다. 이에 수문과 윤소저의 쫓고 쫓기는 관계가 계속 된다.

이후 수문과 경문은 각각 윤소저와 주소저의 거취를 알고 이들을 회유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혼택지가 며느리들에게 「여교십편」과 「여경문」, 「부녀사덕」을 보내어 간곡히 훈계함으로써 이들 형제는 비로소 화목한 가정을 이룬다.

3. 선행연구

『현씨양웅쌍린기』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진세는 낙선재본과 덕홍서림본을 바탕으로 작중 인물의 이름이나 어휘, 분량 등을 비교했으며,³⁾ 작품 속에 반영된 사회의 변화 양상에 대해 살피기도 했다.⁴⁾ 이지하는 연작소설들과의 관계 속에서 『현씨양웅쌍린기』를 살피는 한편, 작품 분석을 통해 가문 내의 윤리와 실생활에서의 감정충돌을 중점적으로 살폈다.⁵⁾ 또한 한길연

3) 김진세, 「현씨양웅쌍린기의 서지적 연구 – 낙선재본과 덕홍서림본의 경우」, 『관악 어문연구』 6,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1.

4) 김진세, 「현씨양웅쌍린기 연구」, 『서울대 교양과정부 논문집』 4, 서울대학교 교양 과정부, 1972.

5) 이지하, 「현씨양웅쌍린기 연작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2.

은 『임화정연』과 『화정선행록』을 함께 다루며 작품에 나타난 능동적인 보조 인물들을 제시하고 분석하였다.⁶⁾ 이 외에 이다원은 연세대본 『현씨양웅쌍린기』 교주작업을 통해 독자들에게 작품을 알리는 한편 작품의 구조나 표현면에서 낙선재본과 연세대본의 차이를 살피는 작업을 수행했다.⁷⁾

이처럼 선행연구는 연작이나 다른 작품들과의 관련성 속에서 작품을 이해한 것이 많았으며, 작품분석과 관련해 현경문과 주소저, 현수문과 윤혜빙의 부부갈등에 초점을 맞춘 것이 많았다. 이에 작품에 등장한 문제적인 인물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해 보는 것도 작품을 좀 더 풍부하게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주소저의 경우 크게 효녀(孝女), 현부(賢婦), 영웅(英雄)이라는 특징을 지니며, 이러한 특징을 발현하는 과정에서 주체성과 능동적인 모습이 두드러진다. 이는 당시 독자들이 지향하던 여성상이나 독자들의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작품과 독자와의 관련성을 밝히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III. 주소저의 형상

1. 효녀(孝女)

『현씨양웅쌍린기』에서 주소저는 부모님께 효성이 지극한 인물로 묘사된다. 주소저가 경문과 갈등하고 대립하는 가장 큰 이유 역시 경문이 주어사 부부를 홀대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녀는 부모가 비록 체모를 잊고 과실을 범하더라도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여겨 마음아파하고, 경문이 친정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한스러워한다.

작품 속에서 주소저가 부모를 생각하고 효도하는 모습은 작품 내의 다른 여성인물들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주소저의 주변인물들이 화락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반면 그녀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과 관계

6) 한길연, 「大河小說의 능동적 보조인물연구 — 『임화정연』, 『화정선행록』, 『현씨양웅쌍린기』 연작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7.

7) 이윤석·이다원 교주, 『현씨양웅쌍린기』 I, II, 경인문화사, 2006.

가 있다. 주소저는 남편(경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수록 통한(痛恨)의 감정을 지니고, 남편을 더욱 더 멀리하게 된다. 남편과의 불화가 심해질수록 그녀는 자연히 친정부모를 그리워하고 부모에 대해 더욱 애틋한 감정을 지니게 된 것이다. 이에 경문과 친정부모가 갈등을 겪을 때마다 부모의 실행(失行)을 안타까워하면서도 부모에게 무례하게 구는 경문에게 노여운 감정을 갖는다. 주소저의 경우 경문과의 부부갈등 외에 옹서(翁婿)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갈등이 서로 영향을 주어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점에서, 주소저는 다른 여성인물에 비해 ‘효’에 좀 더 민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주소저는 부모에 대한 실질적인 효를 행하기 위해 다소 파격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그녀가 혼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부(玄府)를 떠나 부모님을 모시고자 하는 부분에서 잘 나타난다. 부친인 주어사가 간신의 모함으로 낙향하게 되자 주소저는 경문에게 다음과 같이 자신의 뜻을 밝히며 이별을 청한다.

첩의 행도(行道)가 부녀사덕(婦女四德)에 어기옴이 족히 군자의 배위(配位)를 감당하울 길이 없을뿐더러, 부모의 좌측(座側)에 무타형제(無他兄弟)하고 다만 불초(不肖)뿐이니 만리(萬里)의 천객(遷客)이 되어 제향(帝鄉)을 떠나시매 그 정리(情理) 외로운지라 하가(何暇)에 부도(婦道)를 차릴 거를이 있으리이까? 바라 건대 군자는 첨을 다시 찾아 인사(人事)를 주가(主家)할 것 없이 … 생략 …

(권지사, 93~94쪽⁸⁾)

여기서 주소저는 부모에 대한 효를 이유로 자신의 가정을 떠나 부모를 따르고자 하며, 부부의 연을 끊고 일평생 부모님께 의탁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단순히 효의 문제라기보다는 경문과의 갈등에서 벗어나고자 한 부분으로 읽히며, 부덕(婦德)을 위배하는 상황을 효로써 정당화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8) 본고에서 『현씨양웅쌍린기』의 장면을 인용한 부분은 모두 이윤석·이다원 교주, 『현씨양웅쌍린기』 I, II, 경인문화사, 2006.을 따른 것이며, 이하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효와 부덕이 대립할 경우 주소자는 효에 좀 더 우위를 둘으로써 효행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당대 최고의 윤리적 덕목이 효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녀는 이미 혼인하여 가정을 이룬 여성이었다. 따라서 효를 행하기 위해 부부의 연을 끊겠다는 것은 매우 파격적인 발언일뿐더러, 효에 대한 그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수문이나 경문처럼 혼인한 남성의 경우 사회의 제도 내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큰 장애가 없지만, 주소자의 경우에는 남편과 시가에 얹매어 친정부모에게 효를 다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녀는 부모님의 뜻을 존중하고 받들었지만, 그렇다 해서 그녀가 전적으로 부모님의 뜻에 따르고 부모님을 두둔한 것은 아니다. 그녀 또한 양친의 경솔함을 알고 있기에 매번 부모님이 과오를 범할 때마다 좋은 말로 부모님을 회유(誨諭)했던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대목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소녀가 팔자가 박할 뿐 아니라, 처신을 불민(不敏)히 하여 저의 천대를 받으니 누를 탓하리오? 그러나 야아(爺爺)가 어찌 규중(閨中) 불미지사(不美之事)를 존구(尊舅)께 창설(彰設)하시나이까?

(권지일, 22쪽)

차시 주어사가 본부(本府)에 돌아와 부인과 현생의 수장(受杖) 맞힘을 고하며 서로 말하더니 소자가 … 부전(父前)에 나아가 머리를 두드려 야아(爺爺)의 전후사가 선실기도(先失其道)하여 소년의 기소(譏笑)를 취함과 자고로 사위는 백년의 손이어늘 크게 실체(失體)하심을 골똘하여 차후에는 다시 인륜세사를 차마 참예치 못할 줄 고하니 … 생략 …

(권지이, 50~51쪽)

이처럼 작품 속에서 주소자는 출가외인으로서 남성 못지않게 부모님의 곁에서 자식의 도리를 다하고자 하며, 부모님의 과실을 지혜롭게 일깨우고 위로한다는 점에서 그 효행이 더욱 돋보인다 하겠다.

2. 현부(賢婦)

1) 평등한 관계지향

작품 속에서 주소자는 남편인 경문을 뜻지않게 용모와 재능이 뛰어나고 군자다운 덕성을 지닌 인물로 묘사된다. 하지만 그녀 또한 성격이 냉정하고 엄숙하다는 점에서 경문과 공통점을 보이며, 이는 주소자가 남편과 화려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주소자는 경문이 그녀의 아름다움을 꺼리며 남편의 권위로 제압하려 할 때, 경문과 똑같이 꽃꽂한 자세를 취하며 맞서는데, 남편이 자신을 하대할 때에는 예로써 조목조목 반박하고 대치하여 당찬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주소자의 모습은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로서 마땅한 대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평등한 부부관계를 지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다음은 경문이 부친께 책망을 듣고 주소자를 조롱하며 강제로 취하려 하자 주소자가 저항하는 장면으로, 그녀의 평등의식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첩이 비도(非道)한 행사는 이렇듯 경멸하시나 감수(甘受)함직하되 모첨(冒忝)하여 군자의 정실(正室)이라. 군자가 경교(經教)를 외우는 식리군자(識理君子)로 어찌 적거(嫡居) 정실 대접을 한 비첩(婢妾)과 같이 하시나뇨? 첨이 죽을지언정 항복지 않으리니 어찌 한 노예같이 멸대를 받으리오? 연즉(然則) 군자 행실이 휴손(虧損)할 뿐 아니라, 첨의 문호를 스스로 욕함이라. 감히 명을 받잡지 못하나이다.

(권지일, 19쪽)

주군(主君)의 명(命)이 있으나, 오수미약(吾雖微弱)이나 한림의 명부(命婦)라. 만일 죄 있다 하여 폐출(廢黜)하면 문득 명(命)을 들으려니와 불연즉(不然則) 하당(下堂)치 못하리로다.

(권지이, 53쪽)

인용한 부분에서 주소자는 자신이 정실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마땅한 예로 대우하지 않는 경문에게 반발하며, 자신이 지닌 정실의 권위 또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그녀는 남편의 부당한 처사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냉정한 태도로 그 잘잘못을 비판한다는 점에서 일면 매섭고 대쪽 같은 모습을 보인다. 주소저의 이러한 모습은 남들에게 군자로 칭송받는 경문을 옹졸하고 편협한 사람으로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남편에 대한 그녀의 저항을 정당화시킨다.

또한 그녀는 경문 못지않게 자신의 부모와 가문에 대해 강한 애착을 보이는데, 경문이 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이들 부부의 갈등은 더욱 심각해지는 것이다. 경문은 주어사 부부가 과실을 범할 때마다 그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며, 주소저는 이로 인해 경문에게 더욱 더 반발한다. 그 한 예로 ‘취옥의 혼인 사건’을 들 수 있다. 취옥은 주어사의 조카딸로, 경문에게 반한 후 그의 아내가 되고자 한바탕 난리를 일으킨다. 취옥의 계략으로 인해 주어사는 경문을 오해하여 다그치고, 경문은 사건의 전모를 밝힌 후 주어사의 용렬함을 비웃으며 자리를 떠난다. 이는 비록 전후사정을 살피지 않은 주어사의 잘못도 있지만, 장유유서(長幼有序)의 예법에 어긋난 행동일 뿐만 아니라 장인을 대하는 사위의 예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주소저는 경문이 친정부모를 모욕한 것은 자신의 가문을 모욕한 것이며, 이는 곧 자신을 모욕한 것이라 여겨 경문과 대치하고 그를 더욱 더 냉대한다. 이는 주소저의 주체성이 부각된 부분이기도 하다.

이처럼 주소저는 부부관계에서 예(禮)를 중시하고, 이 예를 바탕으로 평등한 부부관계를 지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경문이 주소저가 지닌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고 실례(失禮)하는 모습은 매사를 예도(禮度)에 따라 행하는 주소저의 모습과 상반되며, 그의 행동을 비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경문의 실행(失行)이 부각될수록 주소저의 올곧은 면모가 드러지며, 이는 주소저의 평등의식을 정당화시키는데 힘을 실어준다.

주소저의 주체성과 평등의식은 남편과 대립하는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자칫 부도(婦道)에 어긋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지만,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만이 부도를 지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남편의 과실을 지적하고 이를 깨닫게 하는 것도 부도를 실천하는 다른 모습일 수 있는 것이다.

2) 부덕(婦德) 존중

주소저는 평등한 부부관계를 지향함으로써 경문과 갈등을 겪기도 하지만, 효성스러운 며느리, 우애 있는 동서, 어진 아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그녀의 소임을 다하고 있다. 그녀는 지극한 효성으로 시부모를 섬기며, 동서지간에도 하소저와 돋독한 정을 나누어 집안의 화목을 다져나간다. 또한 비록 경문과 불화를 겪긴 하지만, 아내로서의 소임을 다하며 남편을 소천(所天)이라 반드시는 모습을 보인다.

한 예로 주소저는 자신들의 불화로 인해 시부모님이 경문을 심하게 꾸짖고 부자의 연을 끊으려 하자, 남편의 신상(身上)을 걱정하며 송구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비록 그녀가 경문과 감정적인 앙금은 남아 있지만, 그 이전에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을 걱정하고 시부모님의 꾸중을 함께 감내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소저의 부덕(婦德)이 가장 잘 두드러지는 부분은 경문이 병으로 죽음에 이르렀을 때이다. 경문이 죽자 그녀는 가슴에 검을 품고 경문의 뒤를 따르려 하며, 다음과 같이 엄동설한(嚴冬雪寒)에 경문을 살리고자 자신을 희생(犧牲)으로 바치기도 한다.

주씨 후원에 가 몸이 희생(犧牲)이 되어 북두칠성과 보천성신(普天星辰)께 몸으로써 총재의 명(命)을 빌매, 지성이 감천이라, 간절한 정성이 창합(闇闐)에 사무쳐 천궁보전(天宮寶殿)에 이르니 … 생략 …

(권지십팔, 143쪽)

주소저의 이러한 모습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녀가 남편과의 부당한 관계에서 벗어나려 하면서도 남편이기 때문에 얹매이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것이 그녀의 주체성이나 능동적인 측면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종속되어 이 같은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당대의 윤리와 가치규범 안에서 능동적으로 부덕(婦德)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녀가 남편을 따르고자 하는 모습은 그녀의 주체성·능동성과는 별개로 그 시대의 분위기와 관련지어 이해해야 할 부분이다.

3. 영웅(英雄)

작품 속에서 주소저는 효녀, 현부 외에도 영웅으로서 탁월한 모습을 보인다. 주소저는 월청으로 인해 일광대사를 만남으로써 영웅적인 면모를 발휘하게 된다. 월청은 경문에게 반한 형아 군주를 위해 주부에 잠입해 주소저를 납치하고, 이로 인해 주소저는 졸지에 규방 밖으로 내몰리게 된다. 규방에 머물러 있을 때 주소저는 단아한 규방 처자의 모습 그대로였지만, 규방 밖으로 내몰린 후에는 일광대사에게 도술을 배우면서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녀는 누구보다 빠르게 도술을 터득하여 일광대사의 총애를 받고, 일광대사의 명으로 경문이 출전한 전쟁을 돋기 위해 하산한다.

주소저는 ‘운유자(雲遊子)’라는 이름으로 남장하여 경문과 대면하고, 도술로써 적을 대파(大破)하여 승리를 이끈다. 경문이 뛰어난 능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이기지 못한 전쟁을 주소저가 승리로 이끌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여성 또한 남성 못지않은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남성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품 속에서 공을 세우는 것은 주소저가 아닌 ‘운유자’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여성이 규방 밖으로 나가 현실문제에 참여하는 것은, 남성의 모습일 때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인식을 보여준다.⁹⁾ 주소저가 여성의 모습으로 영웅적인 면모를 발휘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그녀가 남성 못지않은 능력을 지닌 인물로 묘사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부분이다.

이후 주소저는 우여곡절 끝에 다시 현부에 돌아오고, 여전히 경문과 갈등을 겪지만 그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능력을 발휘하여 경문을 구해준다. 특히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경문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자신을 희생으로 바쳐 그를 살린 일이 대표적이다. 이는 앞에서 부덕과 관련하여 살핀 것이지만,

9) 물론 「박씨 부인전」처럼 여성의 몸으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지만, 「홍계월전」·「방한림전」 등 대다수의 여성영웅 소설에서는 주인공이 남장했을 때에 영웅적인 면모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죽은 이를 다시 살려냈다는 점에서 영웅적인 모습으로도 읽힐 수 있다. 또한 후일에 월청이 경문으로 변하여 등장했을 때, 그 진위를 가려 경문을 돋기도 한다. 이처럼 그녀는 운유자일 때뿐만 아니라 주소저의 모습일 때에도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는 비범한 모습을 보인다.

이렇듯 경문이 뛰어난 능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주소저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극복하는 장면은 주소저가 현경문 못지않게 비범한 인물임을 보여준다. 또한 이것은 경문이 주소저의 면모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펑박했다는 점에서, 그녀의 항거가 정당한 것이었음을 변호한다고 볼 수 있다.

IV. 작품 속 여성상과 독자

1. 주체적이고 개성적인 여성상

『현씨양웅쌍린기』에서 주소저는 단연 두드러지는 인물이다. 그녀는 작품에 나타난 다른 여성인물들과는 달리 부부관계에 있어 평등의식을 뚜렷이 내보이며, 가정을 넘어서 대외적으로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다.

작품 내에서 그녀는 아름답고 현숙한 인물로 묘사되지만,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남편에게 만큼은 무척이나 냉정하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고 행하며, 부당한 억압에 저항한다는 점에서 주체성이 뚜렷한 인물로 부각된다. 주소저가 비록 부부간에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저항하는 모습이 돋보이긴 하지만, 작품 속에서 주소저만큼 남편에게 맞서 대항하는 인물은 없다. 윤헤빙이 수문에게 반발하고 저항하지만, 이는 쫓고 쫓기는 과정에서 다소 희화화되는 측면이 있다. 윤소저는 어떠해서든 수문을 피하려고만 할 뿐 주소저처럼 당당히 맞서 비판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윤소저 외의 다른 인물들은 그저 묵묵히 남편을 섬기고, 남편에게 순종할 뿐이다. 특히 하소저는 그녀의 남편(수문)이 과실을 범하면서까지 윤소저를 취하려 할 때 남편을 비판하거나 반발할 법 하지만 웃음으로 넘기고, 남편에게 순종함으로써 주소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주변 인물들과 대조적인 모습은 주소저를 더욱 부각시키며, 그녀의 주체성과 평등의식

도 함께 부각시킨다.

주소저는 이미 혼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귀속되기보다 여전히 자신의 가문과 부모에게 강한 애착을 보인다. 이는 그녀가 자신을 독립적인 개인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있었기에 그녀는 평등한 부부관계를 지향할 수 있었으며, 자신의 가문에 대해서도 자긍심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그녀는 효를 이유로 자신의 가정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당대 현실에서 매우 파격적인 모습이다. 기실 ‘효’는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고, 그녀는 부부관계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지만 과거의 여성들에게 남편은 중요한 존재였으며, 가정은 자신을 보호해주는 공간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가정을 벗어나려는 주소저의 모습은 다소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이외에도 주소저는 일광대사에게 도술을 배워 전장에서 남편보다 더 큰 공을 세우는데, 이는 여성도 남성과 동일한 사회적 능력을 가진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이다.¹⁰⁾ 이러한 동일성은 부부관계에 있어 평등한 관계를 지향하는 주소저의 생각에 무게를 실어준다.

이처럼 주소저는 자못 현대의 독자들을 아연(啞然)하게 만드는 문제적이고 개성적인 인물이다. 주소저의 인물형상이 독자들을 당황시키는 이유는 독자들의 머릿속에 아로새겨진 고정관념 때문일 것이다. 현대의 독자들은 과거의 여성들을 떠올릴 때 유교 이념과 가부장제의 테두리 안에 갇힌 수동적인 여성, 순종하는 여성들의 이미지를 떠올린다. 이러한 탓에 작품 속에서 주소저같은 인물을 만나면 의아해하고, 전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인물유형이라 여기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몇몇 작품들만 떠올려 보아도 주소저처럼 주체적이고 개성적인 여성인물들을 만날 수 있다.¹¹⁾ 또한 각각의 문학

10) 박혜숙, 「여성영웅소설과 평등, 차이, 정체성의 문제」, 『민족문학사연구』 31, 민족문학사학회, 2006, p. 189.

11) 일례로 『홍부전』에서 놀부의 부인만 해도 놀부에게 맞서는 드센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으며, 『옥원재합기연』에서 이원의의 처 공씨 또한 남편에게 맞서고 남편을 꾸짖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주소저가 경문을 냉대하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심하게 묘사되어 있다. 또한 실제 인물로 강정일당(姜靜一堂, 1772~

작품들은 당대인들의 삶과 사회 현실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과거 여성들이 그리 수동적이고 억압받기만 했던 것은 아닐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둔다면 주소저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독자와의 관련성

『현씨양웅쌍린기』는 섬세한 심리 묘사를 보여주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여성의 심리를 세심하게 그려내고 있다. 서술자는 주소저와 경문이 갈등을 빚을 때마다 팽팽한 긴장감을 살리는 한편, 주소저의 분한(憤恨)을 여실히 드러냄으로써 경문에 대한 항거를 정당화 시킨다. 또한 서술시각이 상당부분 여성인물들에게 치우쳐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이 작품은 주로 여성 독자들을 겨냥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사회사적으로도 조선 후기에는 여성들이 소설의 주요 독자층으로 부상했으며, 『현씨양웅쌍린기』는 주로 여성의 시각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작품은 여성들의 주요 생활공간인 가정을 배경으로 삼고 있으며, 남성들의 횡포와 억압 등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중점적으로 다룬다는 측면에서 여성독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을 것이다. 여성들에게 가정이라는 공간과 부부관계는 무엇보다 중요했으므로, 이 두 가지 측면을 잘 포착해 냈으므로 『현씨양웅쌍린기』는 널리 사랑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여성독자들은 작품 속에 나타난 부부관계를 통해 자신들의 처지를 돌아보는 한편, 주소저를 동정하고 그녀에게 자신의 감정을 이입시킴으로써 작품에 더욱 몰입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주소저가 경문과 갈등을 빚으면서도 굴하지 않는 모습이나, ‘운유자’로 전장에 나가 혁혁한 공을 세우는 부분은 이들에게 일말의 희열감마저 주었을 것이다.

이처럼 『현씨양웅쌍린기』는 여성독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부부갈등을 흥미 진진하게 풀어내는 한편, 작품 속에 다양한 여성인물들을 그려 넣음으로써

1832) 역시 남편을 이끌어 주는 스승과도 같았던 인물로 전해진다.

여성독자들의 눈길을 끌었을 것이다. 여성독자들 또한 각각의 여성인물들, 그 중에서도 특히 주소저에게 자신의 감정을 투영시킴으로써 현실에서의 불만을 잊고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즉, 『현씨양웅쌍린기』는 여성들의 현실과 바람을 적절히 조화시켜 주소저라는 인물을 형상화해냈으며, 주소저는 소설과 여성독자들이 교섭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개성적인 인물이라 하겠다.

V. 맷음말

지금까지 『현씨양웅쌍린기』와 관련하여 작품의 서지사항 및 선행연구를 살펴보는 한편, 효녀·현부·영웅이라는 측면에서 주소저를 분석하여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여성의 모습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주소저와 당대 여성 독자들의 관계를 생각해 봄으로써, 소설의 창작과 향유 양상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다.

작품 속에서 주소저는 부부갈등을 겪지만 남편의 일방적인 횡포와 하대에 저항하고 평등한 부부관계를 지향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주소저의 모습은 당대 여성 독자들의 의식, 혹은 바람을 일정부분 반영한 것이며, 여성독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이끌어 냈을 것이라 여겨진다. 또한 작품의 후반부에서 주소저는 남성 못지않은 능력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오히려 남성들보다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준다. 이처럼 여성이 대외적으로 공적을 쌓고 인정받는 것은 현실에서 어려운 부분이었기 때문에 작품 속에서 이러한 부분은 여성독자들에게 대리만족감을 주었을 것이다.

여성독자들은 주소저의 고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상기시키고 그녀를 동정하는 한편, 주소저의 눈부신 활약에 기뻐했을 것이다. 곧 소설의 작자는 주소저에게 당시 여성들의 삶과 소망을 덧씌워 여성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한편, 주소저가 고난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통해 그들에게 희열감을 준 것이라 볼 있다. 이처럼 작품 속 주소저의 모습은 여성독자들을 공략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주소저는 주체적이고 개성적인 여성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지연, 「현씨양웅쌍린기의 단일 갈등 구조와 인물 형상의 관계」, 『민족문학사 연구』 28, 민족문학사학회, 2005.
- 김진세, 「현씨양웅쌍린기 연구」, 『서울대 교양과정부 논문집』 4, 서울대학교 교양과정부, 1972.
- , 「현씨양웅쌍린기의 서지적 연구 — 낙선재본과 덕홍서임본의 경우」, 『관악어문연구』 6,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1.
- 민찬, 「현씨양웅쌍린기」, 『한국고전소설작품론』, 집문당, 1990.
- 박혜숙, 「여성영웅소설과 평등, 차이, 정체성의 문제」, 『민족문학사연구』 31, 민족문학사학회, 2006.
- 신동흔, 「『현씨양웅쌍린기』에 그려진 귀족사회의 실상」, 『고소설연구논총』, 경인문화사, 1994.
- 이윤석·이다원 교수, 『현씨양웅쌍린기』 I, II, 경인문화사, 2006.
- 이지하, 「현씨양웅쌍린기 연작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2.
- 임치균 외, 『장서각 고소설 해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 정병설, 「조선시대의 부부싸움과 부부의 力學: 옥원재합기연」, 『문헌과 해석』 1998년 겨울호 통권 제5호, 문헌과 해석사, 1998.
- 한길연, 「大河小說의 능동적 보조인물연구 — 『임화정연』, 『화정선행록』, 『현씨 양웅쌍린기』 연작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7.